

## 요코하마시 개항 기념 회관의 개요



붉은 벽돌로 된 시계탑이 특징인 이 건물은, 메이지 42년(1909년) 요코하마 개항 50주년을 기념하여 설계 공모를 통해 건설되었으며, 다이쇼 6년(1917년) 6월에 완공되었습니다. 다이쇼 12년(1923년)의 관동 대지진 때, 외벽만 남고 지붕과 내부가 불에 타버렸습니다. 이후 쇼와 2년(1927년)에 재건되었지만, 동으로 된 돔의 건축은 생략되었고, 내부 장식도 다소 간소화되었습니다.

전쟁 중 피해를 면했지만, 종전 후 쇼와 33년(1958년) 6월까지 미군의 점령 하에 있었습니다. 이후에는 노후화로 인해 보존과 철거 사이에서 고민하는 시기도 있었으나, 쇼와 53년(1978년)에는 수리 작업이 이루어졌고, 헤이세이 원년(1989년)에는 돔이 복원되어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. 현재는 다이쇼



외관 전경

- 1909      요코하마 개항 50주년을 기념하여 건설 결정
- 1914      착공
- 1917      완공 및 개관
- 1923      관동 대지진으로 인해 돔과 내부가 소실
- 1927      재건공사, 돔은 생략하고 내부를 전면 개조
- 1945      미군에 의해 점령
- 1958      점령 해제
- 1959      중구 공회당으로 새롭게 개관
- 1978      개수 공사
- 1989      시정 100주년 및 개항 130주년을 기념하여 돔 복원   국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
- 1999 ~ 2000   보수 공사
- 2009      개항 150주년을 기념하여 2층 큰 홀의 스테인드글라스 복원
- 2021 ~ 2024   보존 개수 공사  
외장 및 내장 복원

국가 지정 중요 문화재

## 요코하마시 개항 기념 회관



강당 (481 명 수용 가능)



개항 기념회관의 시계탑은 ‘잭’이라고 불리며, 가나가와 현청 본관 - ‘킹’, 요코하마 세관 - ‘퀸’과 함께 요코하마 3 탑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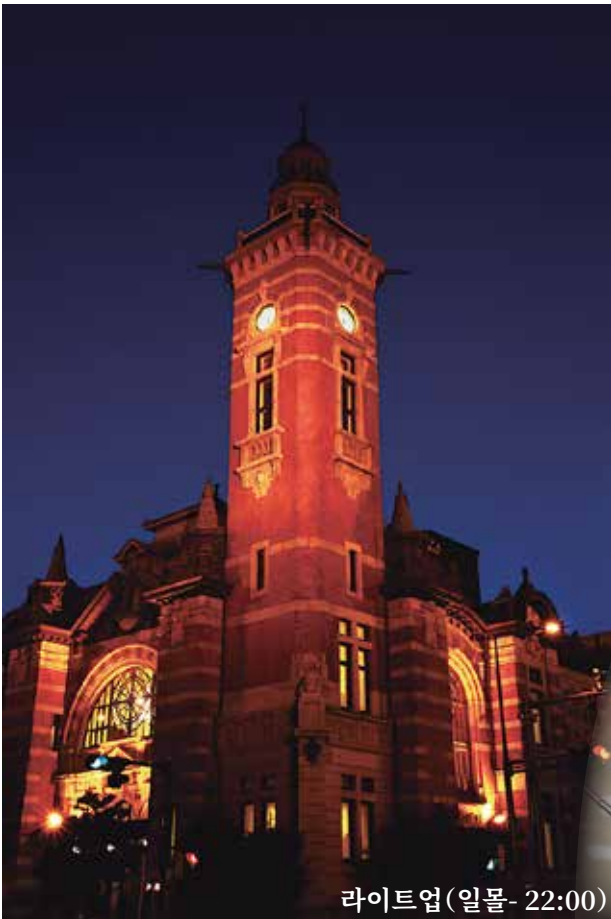


관내에는 우노사와 조합 스테인드글라스 제작소에서 제작한 개항 당시를 그린 스테인드글라스(관동 대지진 후 복원됨)와 와다 에이사쿠 화백의 유화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

또한 이곳은 요코하마 시정을 맡았던 요코하마 마치카이쇼의 터, 요코하마 상공회의소의 발상지, 메이지 시대의 미술가 오카쿠라 텐신이 태어난 곳으로, 각각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.



2 층 대홀 스테인드글라스(오월동주/봉황/하코네고에)



라이트업(일몰- 22:00)



### 국가 지정 중요 문화재 요코하마시 개항 기념 회관

〒231-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1-6 전화: 045-201-0708

관람 무료

개관 시간 09:00~22:00 (관람 시간 10:00~16:00)

휴관일: 매월 두 번째 수요일 (공휴일일 경우 다음 평일)

일반 공개: 원칙적으로 매월 15 일 10:00~16:00

\*평소에는 사용할 수 없는 1 호 강당 회의실을 공개합니다.

\*주차장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\*일반 공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<https://www.kaikokinenkaikan.com/>

### 【액세스】

- JR 게이힌 토호쿠선·네기시선  
“칸나이역” 남쪽 출구에서 도보 10 분
- 요코하마 시영 지하철  
“칸나이역” 1 번 출구에서 도보 10 분
- 미나토미라이 선  
“니혼오도리역” 1 번 출구에서 도보 1 분